四、金銅蓮華打出文環形具

얇은 靑銅板에 打出文으로서 明朝風의 蓮唐草文을 장식하고 裏面에 靑銅板으로 안을 받쳐서 中空으로 되어 있다。鍍金色이 아직 많다。

徑 七·五㎝

五、銀製舍利壺 一

얇은 銀地로 만든 壺形으로서 四花連續七寶文과 蓮唐草文 그리고 무늬의 境界線에는 圈點帶 壺밑다리 周邊에는 蓮瓣文을 打出文으로 장식하고 있으며 병마개는 琥珀을 嵌玉한 八花形이다。全高 三·三㎝

六、水晶寶珠 一

銀製舍利壺와 함께 大理石盒안에 裝置됐던 것으로서 底面을 扁平하게 깎은 寶珠形透明白水晶이다。高 二·七㎝

七、水晶嵌玉蓮華座金具 一

銀製舍利壺와 함께 大理石盒안에 裝置됐던 것으로서 頭部에 白水晶珠를 嵌裝한 八瓣伏蓮華座形이다。높이 一·三六㎝

註

① 秦弘燮:「皇龍寺塔址舍利孔의 調査」美術資料 第十一輯 參照

② 金東賢:「法住寺捌相殿上樑文」考古美術 第九卷 第十一號 參照

伽耶土器의 問題

金 元 龍

一

新羅土器라고 불리우는 慶尙道地方 三國時代 黝靑色炻器가 大體로 洛東江을 境界로 하여 그 西岸(伽耶地區)과 東岸(新羅中心地區)에서 各各 地域的特色을 지니고 있어 前者를 伽耶群、後者를 新羅中心 또는 慶州群이라고 分類할 수 있다는 것을 一九六〇年刊의 拙著「新羅土器硏究」에서 提案하였고 前者에 屬하는 地域으로 金海、咸安、晋州、高靈등 各地、後者에 屬하는 것으로 慶州、梁山、達城、昌寧 그리고 星州(이것은 西岸이지만 東岸形式)등 地域을 들어 둔 바 있었다。

이러한 나의 地域分類 또는 地域群 設定은 그 때까지 出刊된 古蹟調査報告書에 報告되어 있는 土器만을 資料로 한 것인데 그 後 發掘 또는 盜掘에 依해 많은 新出資料들이 쌓이게 되어 新羅土器의 發生、形式變遷、編年、地域分類 등 여러 面에서 再考、修正해야 하고 또 새로운 整理가 可能하게 된 點이 있다。이런 點에서 最近 金廷鶴氏가 新羅土器의 發生年代를 西紀一世紀頃으로 올려야 하고 또 伽耶、新羅 二群 設定은 그릇된 것이라고 批判해 온 것은(仝氏「熊川貝塚의 硏究 亞細亞硏究 十卷 四號)마땅한 일이며 仝氏의 六章行文의 惡意에 찬 感情的인 點만 빼놓으면 學問의 發展上 十分 當然한 것이다。事實 簡見으로서도 新羅土器發生의 年代를 從來의 西紀三〇〇年代에서 적어도 二〇〇年은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拙著「風納里土城內包含層報告」) 充分히 再考할 餘地가 있다고 보는 바이다。그러나 아직 納得이 안가는 것은 新羅土器를 그대로 移植한 日本 須惠器의 경우 그 最古期가 西紀四〇〇年代로 되어 있다는 事實인 것이다。

二

그것은 何如튼 金廷鶴氏는 熊川貝塚에서 나온 新羅高杯가 筆者의 所謂洛東江東岸形式이라는 點과 前記 拙著에서 西岸의 星州가 東岸으로 들어가 있다는 등을 들어 伽耶·新羅의 二群設定은 根據가 없고 또 歷史的 事實(星州가 伽耶였다는 點)을 無視한「그릇된 分類」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金氏는 여기서 말하는 伽耶土器의 伽耶、新羅土器의 新羅를 歷史的 政治的인 伽耶 新羅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며 따라서 歷史的 事實을 無視하였다고 攻擊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考古學에서 말하는 그러한 形式名은 어디까지나 地理的인 分布에 基盤을 둔 地理的인 名稱이며 歷史的 政治的 背景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다。또 伽耶一國이었던 星州를 新羅中心群으로 넣었다고 해서 歷史的 事實 云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가지 꼭 注意해야 할 것은 歷史的 事實은 考古學的 事實의 解釋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考古學的 事實이 歷史的 文獻的 事實에 依해서 變質、左右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伽耶인 星州의 土器가 新羅土器였다는 考古

學的 事實을 無視하고 星州土器는 伽耶土器에 包含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는 熊川貝塚의 結果를 通해서 西岸인 熊川土器도 東岸形式에 屬한다는 새로운 考古學的事實을 알게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이 熊川만 가지고 所謂 伽耶土器라는 名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三

事實 以上과 같이 西岸것이 東岸에 들어 오는 地理的出入은 있으나 新羅土器를 다루어본 사람이면 洛東江을 境界로 해서 大體로 土器가 서로 特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으며 그것은 伽耶、新羅의 두 이름으로 갈라서 불러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앞으로 더 仔細하게 資料의 整理、分析、統計등이 이루어지면 더 明確한 地域的特色들이 밝혀지겠지만 伽耶地區의 扁平한 豆形高杯、그 脚部에 뚫린 上下一列의 細長한 透孔、頸部가 身部에 比해 比率的으로 커지는 傾向이 있는 長頸壺、높은 臺足위에 壺形器나 鉢形器를 結合시킨 器形、갓 圓筒形의 裝飾的 坩堝、그리고 異形土器의 盛行등 伽耶地區의 土器는 新羅中心群과는 顯著한 特色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伽耶地區의 異形土器가 祭器、儀器로서 宗教的인 色彩를 띄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는 裝飾的 基本精神은 亦是 伽耶諸國 또는 거기 住民들의 性格을 反映하고 있는 듯도 하여 古代日本의 그것과 어딘지 相通하는 感을 주는 點과 아울러 우리들의 注目을 끌고 있는 것이다。

四

나는 앞으로 資料의 蓄積을 기다려 나自身의 舊說을 訂正、補充해나갈 計劃으로 있지만 伽耶土器의 存在가 없어진 그러한 狀態로는 되지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도리어 問題는 新羅土器發生의 背景、新羅土器의 編平、新羅群伽耶郡의 交流、新羅土器發生以後의 中國土器와의 關係등이 더 複雜한 問題거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그리고 이야기가 脫線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所謂 先史時代高杯나 滿洲地區의 비슷한 高杯가 반드시 華北地區의 中國歷史時代高杯보다 時期的으로 앞서고 獨立된 것이라는 證據가 없으며 따라서 新羅高杯起源의 問題는 日本의 彌生土器高杯와 함께 愼重히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六八年 九月 十五日 記)

百濟烏合寺考

洪 思 俊

一

百濟의 佛教美術이 日本飛鳥와 新羅에 傳播된 事實은 이미 學界에서 周知하는 바이다。그러나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보이는 百濟寺刹名은

一、虎岩寺(窺岩面 虎岩里 部落名 범바위)
二、王興寺(〃 新里 部落名 왕은이)
三、天王寺(扶餘邑 東南里)
四、漆岳寺
五、道讓寺
六、白石寺
七、烏合寺
八、水源寺(在公州)
九、大通寺(在公州)
一〇、彌勒寺(在金馬)

以上 十個寺刹에 不過하되 中國史乘에는 비록 名寺名稱은 없으나 周書 異域傳에는 僧尼와 寺塔이 甚히 많으되 道士가 없다。하였고 僧尼寺塔甚多而無道士

日政以後 오늘에 이르는 동안 扶餘를 中心한 百濟寺址는

一、定林寺址
二、軍守里 百濟廢寺址
三、東南里 百濟廢寺址
四、佳塔里